CPI 발표 소화하며, 미-이란 협상 앞두고 관망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기술주 양극화 양상 지속, 주말 종전협상 앞두고 관망 기조

- 미 증시는 DOW -0.56%, S&P500 -0.11%, NASDAQ +0.35% 혼조. 소재, 기술주 강세,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약세
- 기술주는 전일에 이어 반도체 강세, SW 약세 기조 뚜렷.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2.3%, IGV ETF(S/W ETF) -2.6%. CNBC 짐 크레이머는 기술주 양극화 현상에 따른 하드웨어 매수, 소프트웨어 매도 전략이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전망
- 한편, 11 일 예정된 미-이란 협상을 앞두고 주요자산군 관망. 달러인덱스 98.4 로 하락, 국제유가 WTI $96.6(-1.3%)

전쟁 충격 반영한 CPI 는 예상 대비 하회, 소비자 단기 기대인플레 우려

- 3 월 CPI YoY +3.3%, MoM +0.9% 전월비 증가했으나, 컨센은 하회. 전쟁 영향에 따라 에너지 MoM +10.9%, 특히 휘발유 +21.2% 전체 물가상승의 3/4 차지. 다만, 3 월 근원 CPI YoY +2.6%, MoM +0.2%로 컨센 하회해 에너지를 제외한 항목의 물가 부담은 안정세
- 4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 47.6, '78 년 집계 이래 최저수준. 1 년 기대인플레 4.8%(+1.0%p), 5~10 년 장기 기대인플레 3.4%(+0.2%p). 소비자심리 악화의 주 요인은 이란전쟁이나, 대부분 조사가 임시휴전 발표 이전 완료되었음은 감안 필요
- 국채금리 상승 10Y 4.317%(+2.4bp), 2Y 3.801%(+1.8bp)

첫 술에 배부르긴 어려웠다, 미-이란 첫 종전협상 노딜

- 11 일 파키스탄에서 미-이란 대표단은 21 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으나, 협상 결렬로 마무리. 밴스 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 목표임을 밝히며, 이란에 최고이자 최종안을 제시했고, 이란의 수용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 이란 핵문제 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렬 후 미국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명령하며 불확실성 확대
- 한편, 이스라엘은 미-이란 협상 진행 와중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감. 14 일 미 워싱턴에서 이스라엘-레바논 회담 또한 예정되어 있으나 협상 동력 유지여부 불투명

반도체 강세 vs 소프트웨어 약세 기조 지속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TSM	TSMC	+1.4%	월간 매출 발표. 3월 매출 +45.2%YoY, 1분기 매출 +35.7% 기록. 목요일 실적 발표 기대감 높이며 주가 상승
AVGO	브로드컴	+4.7%	TSMC의 매출 성장 소식에 견조한 AI반도체 수요 재확인하며 주가 상승. 로스차일드앤코는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500→$517로 상향조정
CRWV	코어위브	+10.9%	앤트로픽과의 AI클라우드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주가 강세. 앤트로픽의 클로드 AI 모델 구동을 위한 다년간의 계약. 시장은 메타와의 AI 클라우드 용량 추가 공급계약에 이어, 대형 고객사 추가하며 매출처를 다변화함에 주목. 한편 에버코어ISI는 앤트로픽 계약 발표 이후, 투자의견 '아웃퍼폼'과 목표주가 $120 유지
NOW	서비스나우	-7.6%	AI 네이티브 전환 플랜을 발표, 전 제품군 대상 AI 표준화 및 AI에이전트의 판단능력을 향상 시키는 '컨텍스트 엔진' 도입하며 기술적 격차 확대에 나섬. 다만 소프트웨어주 전반 약세 영향 및 전일 UBS 투자의견 하향에 주가 약세. UBS는 투자의견 '매수'→'중립', 목표 주가 $170→$100로 하향 조정. 기업들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가 기존 소프트웨어에서 신규 AI 솔루션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 근거